

올해는 DMB의 원년

CDMA 신화의 뒤를 이을 새로운 수출상품인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DMB 해외진출 추진단' 이 출범한다.

정보통신부는 1월 6일 진대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위원회, 방송3사 및 TU미디어, 제조업체, 연구기관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DMB 해외시장 진출 전략 모색을 위한 조찬간담회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DMB를 새로운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이 구성된다. 진대제 장관과 방송위,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이 합의하고 올해가 DMB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상파DMB 현황 및 해외진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방송사·제조업체·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추진체를 구성해 해외 로드쇼 개최, 국제표준화 활동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참석자들도 유럽, 중국 등에서 우리 DMB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등 우호적인 해외시장 및 정책 여건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시장 진출에 함께 참여하자는데 동감했다.

참석자들은 또 DMB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날 논의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실무추진단을 구성기로 합의했다.

특히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상용서비스의 조기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방송위의 조속한 사업자 선정과 방송사들의 빈틈없는 상용서비스 준비를 주문했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DMB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음역지역 중계기 설치 등에서 이통사업자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이통사들이 DMB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세계 디지털라디오 사업자 단체 '월드 DAB포럼'이 지상파DMB를 표준으로 채택, 유럽표준화기구(ETSI) 표준으로 상정하는 등 우리나라 DMB기술이 국제표준규격으로 채택됨에 따라 DMB를 CDMA에 이어 새로운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 세계시장을 선점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출처:정보통신부)

부품·소재 클러스터 구축 전국 확산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월 2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반월·시화 지역이 7개 산업혁신 클러스터 가운데 부품·소재 분야 시범단지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광주·창원·울산·포항·군산 등 전자·기계산업 분야 집적단지를 인근에 둔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화산업별 부품·소재 클러스터 구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정부도 올해부터 산업단지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전자·기계·자동차·금속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해당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반월·시화단지와 인천, 부천을 연결하는 부품·소재 혁신벨트 조성도 추진된다.

특히 부품·소재기업이 밀집돼 있는 반월·시화 산업단지에는 특정 모듈 단위별 미니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미니 혁신클러스터는 특정 부품·소재 분야에서 산·

학·연이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고밀도PCB 기판, 초정밀 광학, 하이테크 부품, 나노소재 등이 1차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산업단지 및 지자체별로는 기계 부품·소재(창원),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울산), 자동차·조선용 금속소재(포항), 전자소재(인천 송도), 금속소재(부천), 광학·나노소재(광주), 자동차부품(군산), 바이오 소재(대전·오창·지구) 등이 지역별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 군산국가산단 46만㎡를 자동차·기계 부품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총 640억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오는 2008년까지 총 1130억원을 들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LED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도 포항 일원을 국내 최고의 소재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소재분야 R&D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기로 했다.

(출처: 전자신문)